

담뽀에 교직원의 마음을 담고 마음을 풀다

특별할것도 없이 평소와 같이 웃음 가득한 월요일의 시작 어린이 노트 알림장으로 오전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원아 귀에 멍이 들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원아가 멍이 들었는데 가정에서도 원에서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며 교사에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모든 방법으로 가만있지 않겠어요”라고 교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듣는 순간 범죄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에게 그 순간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뢰받지 못한 교사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시야가 좁아지며 소극적으로 됩니다. 보육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일일 것입니다. 저는 며칠 밤잠을 설치며 어떻게 학부모에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고민에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같은 교직원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고 원장님과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을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민 중에 제가 보육활동보호센터에 공모를 한 적이 있어 담뽀에 저의 마음을 모두 이야기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상담신청을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 작성을 한 후 그럴 거라고 생각 못 한 제가 가지고 있던 답답한 마음이 정리가 되고 풀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타인에게 모두 말할 수 없는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고 나니 거짓말처럼 생각이 정리되고 조금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정리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상담 신청을 해 놓고 난 다음 학부모님과 다시 상담했는데 담뽀에 쏟아냈던 감정들을 담담하게 학부모에게 전달을 하니 학부모님과의 오해를 잘 풀 수 있었습니다.

보육교직원도 보호해 주고 상담해 주는 단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안심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보육교직원에게도 마음을 담아 마음을 풀어보는 그래서 건강한 마음과 행복한 보육현장을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